



이주민 선교를 직조하는 '정책'의 씨줄과 '사역'의 날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회가 곧 총체적 이주민 선교의 기회다

국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농어촌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파종기·수확기 등 최대 5개월간 체류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근로한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매년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이탈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상록 목사(국무총리 소속 외국 인정책임위원회 민간위원·상명대 겸임교수)는 "미등록 외국인이 40만 명이나 되는 것은 본인이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들을 계절근로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

환하고 합법화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두 가지 선별조건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현재 5개월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은행에 의무공탁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여 중도에 찾지 않는 조건으로 은행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와 협약하여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는 체류외국인을 느슨하게 관리했고,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들의 세금미납, 거주지 미파악, 사업주의 동의 없이 타업체로의 자유 이동 등 무질서 상태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인력부족의 이유로 체류자 관리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손승호牧사는 "한국 사회의 산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없이는 존속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40만 명은 이미 농어업·

공업 분야에 필수적인 인력이다. 만약 이들을 추방한다면 농촌과 소규모 공장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록 체류자를 양성화하고 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어와 기술을 교육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로 체류 및 근로할 수 있듯이, 한국은 현재 23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호주의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할 때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원하는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유연한 비자 시스템으로 취업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워킹홀리데이처럼 확대된다면, 기존의 무단이탈 문제가 완화되고 농어촌에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주민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심리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나그네로서 타향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의 심리적 고충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파괴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선교학 센터의 폴 우즈 박사는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지역 사회 내의 이민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가르친다. 외국인을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환영함으로 써 여호와와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종교적 타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 개개인을 바라보고 수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본지는 각계의 소리와 이주민의 입장을 9월호에 담았다.

미션나가, 인도 나갈랜드 넘어 '아시아 청년 선교동원 운동'으로 확산

AEA 선교위원회·AEA 청년위원회·위디국제선교회 공동주최



▲ 2022 미션나가 대회가 3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열렸다. 대회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위디국제선교회

인도 북동부와 나갈랜드 청년 선교 동원대회인 '미션나가'(Mission Naga)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년 만에 인도 나갈랜드 디마푸르 이스턴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의 청년대학생 선교동원대회인 '선교한국'을 벤치마킹하여 2007년 처음 열린 미션나가는 2년마다 개최됐으며, 이번이 8회째다. 미션나가의 '나가'는 나갈랜드 청년들의 선교 동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어로 '나가다', '보내지다'의 의미도 있다.

올해 미션나가는 컨퍼런스에서 무브먼트로 명칭을 바꿔 사역의 지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디국제선교회가 산파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주도해 왔다면, 이번부터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Asia Evangelical Alliance) 선교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하게 됐다. 이로써 나갈랜드 청년 중심의 선교동원대회에서 아시아 청년 선교동원대회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올해는 나갈랜드의 40여 부족과 미얀마 국적의 20여 부족, 한국과 인도, 필

리핀 출신 자원자 등이 참여했다.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첫 대회로도 성공적이었다. 대회 기간에는 국제문화교류사(IC, Intercultural Communicator) 교육과 시험이 실시돼, 총 37명의 나갈랜드 신학생이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위디국제선교회는 "미션나가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젊은 크리스천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동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션나가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은혜가 컸다"고 말했다.

현장 대회를 주도한 현한나 교수(장로회신학대학원 선교학)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미션나가에 참여하고 돌아보니, 나갈랜드와 미얀마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혼의 운동'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계절에 쉽게 집중력을 잃을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따

라 영상 강의들이 재생됐으나 전기가 끊겨 여러 차례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인 아쉬시 목사와 공동으로 사회를 보며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며 "무대에서 내려와 학생들 옆에 서서 편하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미 각 주제에서 다루는 핵심 용어에 대해 잘 요약하고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감동했다.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활짝 열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적 본질과 그분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때로는 부족주의로 인한 적대감과 질투, 도전 속에서 미션나가 대회가 현장에서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거나, 소수 부족에 의해 독점적으로 끌려가는 어려움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 교수는 "하나님은 풀뿌리에서부터 백성들을 키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며 "이 동원운동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너머에서 일하므로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의 환대에 반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참여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사람들을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선교의 동원을 하시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서양 선교사들의 위대한 선교적 유산과 전설적인 인물들의 업적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의 손으로 밭에서 이미 익은 곡식을 수확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에 의한) 내부자 운동과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풀뿌리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정신과 젊은 성인 및 청소년들의 재능은 필요하다"며 "그들은 지역 문제와 역사 안에서 씨름해 와서 인도의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어 누구보다 해결책을 내는 데 전문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그들이 북동부뿐 아니라 인도 내륙의 힌두교가 깊이 뿌리 내린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선교할 차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션나가 운동에 지역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와 그들의 리더십이 기여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다"며 "이것이 그들의 땅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로 그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 선교운동은 그들의 전략과 자발적 선교운동성을 통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창선 위디국제선교회 대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2024년 9회 미션나가 대회가 북동부 인도의 나갈랜드 지역을 넘어 아시아 어느 도시에서 개최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회는 마쳤지만 후속 실행 계획을 적용해 더욱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인터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미등록 외국인 양성화해야" 8·9면

[영문기고] Dr. T.V. Thomas 12·13면

로잔 GDN, 글로벌 클래스룸에
MMTS 적용 결정 7면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이주민이 목회하고 이주민이 섬기는 교회

디아스포라네팔 교회
김해이주민의 집 대표



글

수베디 목사

저는 1996년 10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후 1997년에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학공부를 하던 중 상황에 이끌리어 김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005년, 한 신문에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해 외국인 선교교회'라는 제목 아래 "한국에서 이주민이 개척한 최초의 교회"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왜 네팔이 아닌 김해에 오게 되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독립된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델로 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김해에서 네팔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립적인 모국어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주민으로서 외국인을 선교할 때 지키는 원칙과 방향입니다.

1) 문화와 사회적 배경 이해:

한국은 다수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다양한 단기선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 이주민을 선교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대할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 문화갈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네팔인으로서 네팔인을 섬기는 일은 훨씬 수월하게 만남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기독교인 네팔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삶의 이해와 소통:

이제는 한국교회도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회 내에 상담센터,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담당하는 한국인이나 현지인 사역자들 중 다수가 이주민 선교 전문가가 아니거나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학생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삶 또는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등 일상생활과 노동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많은 네팔인들이 이주노동자, 학생, 다문화가정의 일원으로서 저희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인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섬김보다 '신앙 성장'에 더 관심:

사실 한국교회는 이주노동자를 소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소수자이지만, 단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대부분 중산층이었고, 귀국하고 나서도 사회적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팔에서 실시된 2022 지방선거에서는 한국에서 귀국한 이들 중 2명이 시장, 3명이 군수, 그 외에 8명이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민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

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김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이주민의 삶에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과 진리를 알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신앙교육'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유로운 교회:

한국교회 내의 외국인 예배부 대부분이 외국인을 교회에 데려온 후 엄숙한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교회에서마저 딱딱한 분위기를 겪어야 한다면 마음을 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민 선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려는 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에는 영역에 따라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다가 도리어 망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한국인을 위한 '눈높이' 목회가 있듯이, 이주민을 위한 '눈높이' 목회도 필요합니다. 현장과 배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눈높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교회를 시작한 2005년에 저는 한 분의 한국 목사님과 동역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11시에는 한국 예배, 오후 2시에 외국인 예배,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

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에게 '가정교회'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허용된 시간에 허용된 장소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주민들 역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데도, 한국 교인들은 이주민들의 섬김을 기대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거의 트렌드처럼 만들어 둔, 그러나 비전은 없는 '비전센터'를 이주민 사역을 위해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당이 아닌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이주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많은 외국인 교회가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교회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야 하며 이주민 사역자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의 전통적인 주일 예배시간을 따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예배 순서나 형식 역시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맞도록 조금씩 변형하고, 네팔 현지의 목사님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이면서도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배, 그럼에도 예배자들에게 적합한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한국교회 속에서 이주민이 직접 목회하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델이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미등록 외국인 사면과 합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관계당국과 정치권이 그동안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방기해왔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한 (미등록체류외국인 사면과 합법화 관련) 국정질의를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날 질의에서 조정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등록체류중인 외국인은 이미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 총수 200만 명의 5분의 1에 이르는 숫자다. 한마디로 외국인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하여 노동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취업하여 노동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사업체

의 수요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규모는 국내 기업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까다로운 도입절차와 규제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때에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까닭에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을 찾는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등록체류외국인의 규모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를 회피하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속과 구금, 그리고 강제추방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이 질의를 통해 지적했듯이 단속과 추방을 통해 미등록체류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출입국단속반원 한 사람당 1300명이 넘는 외국인을 단속해야 한다. 12만 명 정도 되는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숨고자 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찾아내 강제추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인간사냥'이라고 불리는 단속과정에는 인권침해와 각종 인명사고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외국인보호소가 과밀화되면서 벌어졌던 각종 인권침해를 생각하면 더욱 아찔해진다.

따라서 남은 해결책은 조정훈 의원이 제안하였듯이 '사면'과 '합법화'조치 밖에는 없다. 2003년에 부분적으로 합법화조치가 시행된 이래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는 한 번도 시행된 바가 없다. 거의 매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정지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되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절벽과 노령화, 생산가능 인구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컨트롤타워로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등록체류 외국인은 이미 국내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와 이러저러한 관계를 형성해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불안정한 체류상태에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이민자들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종변이의 등장으로 해외에서의 입국이 원활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갔다. 이전 정부들처럼 정치적인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뛰어든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등록외국인도 방역의 주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이 어찌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기일 수 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미등록체류외국들도 조건 없이 모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글 제공: 이주민센터 친구

'2022 청년, 미래, 선교 섬김'... 청년 선교의 새길 찾는다

한국교회 청년 사역 위축과 선교자원 감소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교회 청년 지도목사들과 대학·청년 선교단체 리더십, 청년세대들이 함께 위기의 원인들을 찾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2022 청년, 미래, 선교 섬김(청미선 섬김·공동대회장 강대홍, 장근성, 최읍)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청년 사역의 현주

소를 파악하여 미래 사역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2개 교회, 20여 개 선교단체, 15개 교회 및 기관 소속 청년대표와 진행요원 등 총 60여 명이 청미선 섬김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 선교한국이 공동 주최하고,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감, CTS기독교TV가 후원한다.

이번 청미선 섬김은 통계 및 분석, 연구를 공유하고 청년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면서 청년 사역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자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무브먼트로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

KWMA는 "청년선교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나눔을 통해 청년 선교와 동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모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청미선 섬김에서 서로 배우

고 나누며 인격적 친밀성과 사귄, 동역자적 관계성을 형성하여 향후 존재적, 사역적 연합으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위한 사역 전략: 국내 유학생 사역



중앙아시아유학생센터 대표

글

전욱 선교사

2015~2019년 사이 국내 체류 인원 최다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카자흐스탄(446.3%, 28,297명 증가)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국적별 이주민 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5월 기준 64,656명).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오지만 학위 취득과 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도 9천 명(2019년 통계 기준)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잠시 주춤했던 한국 입국 '러시'는 제한 조치가 풀리는 대로 곧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필자는 201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귀국했을 때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국제 이주가 급증하는 세계적 추세의 한복판에 한국이 놓여 있는 듯했다. 사역지에서 비자발적인 형태로 갑작스럽게 귀국한 상황이었기에, 이주민이 급증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는 향후 사역을 두고 기도하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지침이었다. 카자흐스탄에서 2년(1997~199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8년 5개월(2010~2019년) 동안 현지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과 그곳에서 살면서 체득한 중앙아시아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활용하면 국내에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 여름캠프에 참가한 중앙아시아유학생센터 학생들

이에 중앙아시아유학생센터(CCAS: Center for Central Asian Students)를 2020년 4월 설립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감사예배도 드릴 수 없었지만, 한국어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도리어 지방 도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다. 현재는 약 6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CCAS는 한국어 교실(봄/가을 학기 10주 과정, 선생님 8명)과 LF 행사(격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lunch fellowship, 학기마다 6회 실시)를 두 축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위한 목요기도회'(저녁 7:00~8:00)는 우리 사역의 핵심적인 영적 동력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은 이슬람 신비주의의 수피즘(Sufism)의 영향으로 민족 이슬람(folk Islam)의 특성이 강하다. 꾸란과 하디스 같은 경전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지만, 이슬람교 신앙이 민족 고유의 전통 신앙과 풍습에 혼합되고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의 민족 종교로써 독립 이후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로 인해 중앙아시아 무슬림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상실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수니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고 정부에 위협이 되는 근본주의와 극단적 이슬람을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IS와 같은 과격한 집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CCAS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에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CCAS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센터라는 점과 내가 목사라는 것을 첫 만남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유학생을 존중하고 돕기 원한다는 점을 투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독교 청년들과 무슬림 유학생들이 서로 만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랑의교회와 성복중앙교회, 관악ESF 청년들과 수차례 LF를 함께 진행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여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교회 직장인권 사회에서는 할랄 식재료로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어 유학생들에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전달해준 적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캠퍼스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공부 초대를 거절했을 때 기독교 친구와 교수가 보이는 싸늘한 시선과 차별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물론 중앙아시아 무슬림에게 복음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그들을 존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태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무엘 즈웨머(Samuel M. Zwemer)가 고백한 바와 같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해도 끝까지 섬기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강요와 힘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겸손한 희생을 통해 도달하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감사하게도 유학생들은 우리 부부를 부모와 가족처럼 받아주었고 CCAS를 한국에 마련된 '두 번째 고향집'으로 여기고 있다. 금년 가을에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풍파 속에서 2년 동안 파도타기를 연습하게 하신 하나님께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한다. 그 순종의 삶 끝자락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사역의 결실이 맺히리라 믿는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이재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도시선교의 플랫폼, '선교적 다문화교회'

열방의 도시세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선교동력이다



글 오영섭 목사

오영섭 목사(Rev. David Oh)는 열방의 도시 세대에 초점을 두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를 설립(2005), 다민족·다문화·다언어 사역을 위한 선교적 국제교회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를 서울의 캠퍼스타운에 개척(2014), 다민족을 위한 '다문화선교협의회' 공동 설립(2015), 전 세계 러시아어권 공동체를 위한 'RUSTA'를 공동 설립(2016)하며, '아릴락 도시선교연구소' 소장으로 도시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이전 호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5~38)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특히 교육, 전도, 치유의 3가지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제자삼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허다한 무리,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추수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먼저 구별해

세우시고 양을 먹일 목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전략을 따라, 열방의 도시와 캠퍼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제자, 목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 제자삼아야 한다.

도시로 유입해 들어오는 이들에게 정착 초기 6개월은 매우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언어·관계적 필요로 인해 현지인과 현지문화를 향해 열린 태도를 지닌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현지인과의 관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함께 이주해 들어왔던 자신의 문화와 언어 관계망에 의존하게 되면서 복음에 반응하기 어려운 견고한 장벽을 쌓고 만다.

이주자들 모두는 생존과 생계, 또는 진학 및 진로를 놓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경우라 할 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된 삶을 통합적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교회는 이를 이해하고 초기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돕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 사역을 감당하여 이주민이 도시 속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해나가고 통합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아야 한다.

놀라운 것은, 도시 속 교회가 타문화권에 들어온 한 영혼과 그 가정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마치 21세기 모세와 요셉을 세우는 일과 같다. 하나님

께서 친히 세우시는 국가적 리더십을 통하여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한 제자도 훈련을 받아 세워지는 열방의 다음세대는 도시 속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국과 또 다른 열방 가운데 파송되어 선교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 속 나그네를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제자된 삶을 살아내고 세계선교를 위해 동역할 '선교적 다문화 교회'(Missional Multicultural Church), 또는 '선교적 국제 교회'(Missional International Church)가 도시 속에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끌며, 그들은 열방의 도시세대(Urban Generation)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역사에 동참할 자들을 각 세대마다 친히 예비해 오셨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할 원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선교를 위한 지혜와 전략을 풀어주셨다. 친구 약 속 하나님의 선교역사와 현대선교시대를 넘어 오늘날 '이주민 선교시대'의 문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 이시다. 그분은 기뻐 즐기며 헌신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선교의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열방의 도시세대를 전 세계 대도시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 이 열방의 도시세대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하나님 나라 선교운동의 선교동력(Mission Force)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 다민족·다언어·다문화 도시세대, 특별히 외국인유학생을 문화미디어 매트릭스로 담아내고 복음으로 제자삼는 새 가족부대. 이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시대에 도시세대와 도시선교의 플랫폼인 '선교적 다문화 교회운동'(Missional Multicultural Church Movement)이며, 도시선교단체인 랜드마커미니스트리의 사역이다.

www.landmarkerministry.com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가

로잔 GDN, 글로벌 클래스룸에 위디국제선교회 MMTS 적용 결정



▲ 지난 1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GDN 임원 모임이 진행됐다. ©로잔 GDN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컨선테이션' 앞서 임원 모임서 논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로잔 GDN (Global Diaspora Network, 대표 TV 토마스 박사)이 로잔 글로벌 클래스룸에 위디국제선교회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의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8월 23일부터 27일 (현지 시간)까지 남아공 케이프타운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진행되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컨선테이션'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임원 회의 중 논의됐다.

로잔은 산하 28개 분과에서 각자 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글로벌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GDN도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소개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클래스룸을 시작하면서 MMTS를 적극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997년 이주민 선교 전문 단체로 설립된 위디국제선교회는 이주민 시대를 맞아 이주민을 섬기고 선교하는 지역교회 지도자와 성도, 미래 세대를 위한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MMTS를 개원했다. 이론과 실재를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자와 현장 사역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2007년 3월부터 프로그램 시작했다.

총 16주간의 교육과정에는 강의, 프로젝트, 사역 현장 방문, 현장 실습, 인턴십 등이 포함돼 있다. 디아스포라 신학과 활용, 한국과 세계의 이주 현황,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 이주근로자·국제유학생·다문화 가정과 자녀·난민 등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도전과 기회 등 풍성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870여 명이 MMTS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다수의 수료생이 심화과정과 디아스포라 선교학 연구를 마친 뒤 국내외 현장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수료생에게는 신학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문화교류사(Intercultural Communicator) 2급 및 1급 라이선스 취득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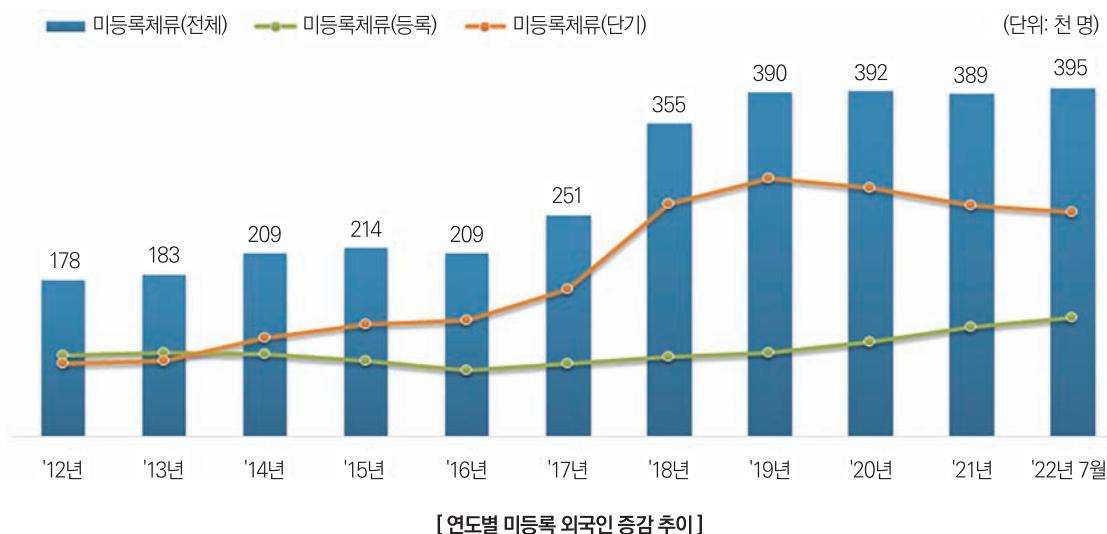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컨선테이션 실행팀으로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로잔 GDN 부대표이자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목사(KIMA 상임대표)는 "MMTS가 전 세계 이주민선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국내 미등록 외국인 체류현황

이주민다이제스트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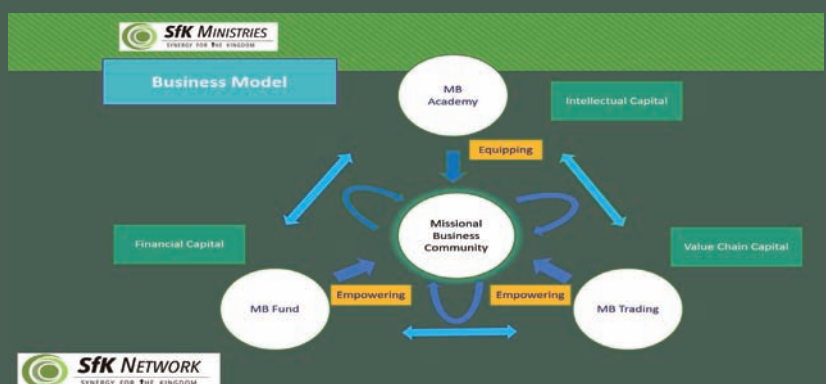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81,350명이고 이 중 미등록 외국인은 395,068명(19.0%)이다.

흔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k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조정한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한(시대전환) 의원은 15년간 세계 은행에서 근무하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 이후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현재 시대전환의 당대표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등록 외국인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의 대사면을 주장했다. 과연 미등록 외국인 정책은 어느 지점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계속되는 이주민 유입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아스포라신문은 그 답을 듣기 위해 지난달 10일 조정한 의원실을 찾았다.

—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등록 외국인 관련 질의를 하셨다. 의제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이 존재한다. 통계에 따르면 거의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전체 인구보다 큰 숫자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할 때 효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동성동본은 과거에 불법이었지만 정부는 차차 사회적 동의를 얻음으로 이를 합법화시켰다. 또 하나는 지하자금 양성화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체를 처벌하는 대신 등록을 통해 양성화를 하고 이후부터는 제대로 납세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없는 것처럼 눈감고 지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조건이 꽤 붙는다. 먼저, 사회에 명백히 해를 끼치는

"미등록 외국인 정책, 인도적 차원 넘어서는 실질적 담론 필요"
"8월 말~9월에 이민청 및 외국인정책 관련 세미나 가질 것"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폭력, 마약거래, 성폭력 등을 벌인 범죄자들은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40만의 미등록 외국인 중 해를 끼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들어오면 무조건 합법화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결국 이것은 현실정치이므로, 사면을 통해서 나타날 이익을 증명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사면하자는 것은 감정적 답변일 뿐, 이러한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전에 미국 조지아주의 클락스톤(Clarkston)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도시는 난민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다. 그곳의 정부관리를 만났는데, 그분은 난민에 대해 단 하나의 통계만 보여주셨다. 예컨대 한 난민을 미국정부가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몇만 불이라면, 그 사람이 미국에 정착해서 일생 동안 내는 세금은 평균 얼마인지, 따라서 난민 한 명을 받는 것은 미국 경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를 추산하여 따져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주민 처우에 대해 인도적 접근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인도적 접근으로 이주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커뮤니티의 존재는 항상 중요하다. 다만 이주민들이 절대다수가 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인 담론과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대사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침 오늘 아침, 법무부와 협의로 8월 말부터 9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민청 및 외국인정책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초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다시금 생각해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해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유리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과 달리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지점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바다를 포함해도 몇 개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경은 미국과 멕시코처럼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되지 않기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입구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태국 같은 특정 국가의 경우,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10명 중 약 7명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들어와 살고 계신 분들과 그 자녀들에 한해서는 한 번의 대사면을 통해 양성화시키고, 이 대사면이 패턴화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교육·노동·주거 등의 측면에서 발전시켜가고 싶다.

— 유럽의 이주민 정책을 참고한다면?

앞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유럽의 이민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좋은 사례도 있고,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민 문제가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지 않은 선진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에 없다. OECD 국가의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민의 찬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다. 어떠한 이민정책이 필요한가 모두가 고민할 때, 저는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며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경험상 유럽 정책의 장점은 문화 기저에 깔린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해 이웃,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매우 거칠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향한 혐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저는 외국인을 도구적 수단에서 벗어나 바라볼 필요성을 유럽 정책을 통해 배운다.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가치, 개인과 인권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배려, 함께 사는 것의 가치 등에 기반한 현실적인 이민정책과 외교정책이 나라마다 있다.

최근에 덴마크를 방문하여 보고 놀란 점이 있다. 덴마크 역시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만약 한 지역에 외국인의 수가 특정 인구를 넘기면 그곳은 더이상 외국인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외국인의 해당 지역 주택구입도 금지한다. 이는 마치 경기도 광주나 안산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덴마크가 제재한다는 의미이다.

▶ (9면에 이어집니다)



MMTS
심화과정 4기

커리큘럼 :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 사역 / 상황화 모델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 정책의 씨줄과 선교의 날줄 / BAM과 통전적 선교 / 도시선교와 유학생선교 / 타문화와 타종교 /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문의 : 최현주 선교사 010-4688-3816 /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 ✓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로잔 디아스포라 글로벌 클래스 룸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 클래식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훈련은 대면 및 비대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 수료 후 IC(국제문화교류지도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 ✓ 훈련기간 **2022. 10. 17 ~ 12. 5**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장 소 _ 안양 새중앙교회 선교관
- ✓ 훈련비 _ 100,000원
- ✓ 입금계좌 _ 464-910007-22804 위디선교회

<https://forms.gle/RUU18rDbdkuB1tN7>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시대전환 대표)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례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 세계 각지에 한인타운이 존재하듯 이러한 밀집공간이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을 한곳으로 몰아내어 우리 앞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밀집지역이 한국에 빠른 속도로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

— 국내 이주민 유입은 사회적인 면과 선교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살고 싶은 나라, 일하러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열매이자 성과다. 그 자체로 이 나라를 일구어온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를 느끼게 한다.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하나

님께 감사드리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입의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들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오는 분들이다. 모든 현상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으므로, 이 역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나 많은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는 현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빠른 속도로 올 것이다. 전문가 대다수가 그렇게 전망한다. 이 과정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현실적 차원에서 국익에 맞는 이주민 정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을 어떻게 잘 융합할지가 현실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 이주민 선교에 관한 의견을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주민을 사역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관해 교회에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첫째로,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차원에서 이주민을 나그네로 볼 것인지, 혹은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묻고 싶다. 나그네로 받아들이는 것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둘째로, 이민청과 같은 기관이 생겨나고 정부가 이민자 정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나갈수록 교회와 정부는 역할이 중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가 이민정책을 위한 예산과 인원을 확장해가고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때, 교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의 역할을 차별화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자 숙제라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혐오' 분야이다. 신앙인이란, 이주민을 향한 혐오가 비신앙인들보다는 아마도 적을 것이다. 신앙인은 편견과 선입관을 속으로 품고 있겠지만, 세상에서 오가는 혐오 표현은 그야말로 아주 거칠다. 따라서 신앙인이 일반사회의 외국인 혐오를 치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다. 교회가 이 부분을 건드려주었으면 한다. 정부의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단호하다. 거의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는 경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터치하기엔 어려운 것이 정부정책이다. 반면에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세혈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 수 있지만, 교회가 이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주민 정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이주민에 대해 개인적으로 삶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90년대 말 조국을 떠나서 2016년에 귀국할 때까지 만 18년을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다. 꽤 많은 나라를 다녔고,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한 적도 허다하다.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는 히브리어나 아랍어를 하지 못해 영어만 쓰기도 했다. 30대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주민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주민의 감정과 행위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분들에게 너무 동화되어 치우칠까 스스로 경계하기도 한다.

다만 외국의 한인타운에 살면서 느낀 것은, 밀집지역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라도 넓게 본다면 외국인을 사회에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만 와서 돈을 버는 디아스포라 문화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 한국도 많은 이들이 돈을 벌러 남미와 중동에 갔다 온 경험이 있지만, 정작 그 나라가 잘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하루 빨리 큰돈을 벌어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이민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 살아갔다. 아내와 남편, 자녀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 자신이 기여하겠다는, 함께 하다가 되겠다는 의미이다. 나라가 잘되는 것이 개인에게도 이득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가족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설사 그들이 돌아가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을 여는 디아스포라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가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노예 디아스포라: 꿈꾸는 요셉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no

글

노예제도의 개념과 흐름은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다. 수 세기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 갔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뽑혀 나가 여러 곳으로 이주되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박탈당한 노예는 단순히 상품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가치는 소유주를 위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신체적 능력만으로 측정되었다. 성경에는 노예와 노예제도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갔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예 디아스포라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해준다.

노예 디아스포라가 된 요셉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창 37:28)

모든 것은 요셉의 꿈에서 시작되었다. 요셉이 꾸 꿈은 한때 화목했던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형제들은 질투했고, 반면에 아버지는 그 꿈을 소중히 여겼다. 가족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17세의 동생을 노예로 팔리라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이스마엘 자손에게로

보내졌다. 요셉이 겪게 되는 경험은 노예 디아스포라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일부와 매우 맞아떨어진다.

첫째로, 요셉의 이주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실행되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는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노예로 팔려 간 요셉에게는 '소속'이 부재했다. 육체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자신의 사회적 기반에서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소속에 대한 고리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요셉은 13년 이상을 가족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한 채 가족관계가 단절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둘째로, 요셉에게는 초국가적 정체성이 나타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정착 그는 가족을 버린 적이 없었다. 낯설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땅에 자신을 통합시키기 위해,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와 결혼하는 등 이집트의 문화와 사회 풍습을 받아들였다(창 41:50~51). 동시에 그는 젊은 시절 그의 종교적 기반과 유산을 유지했고, 부모에게 가르침 받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셋째, 요셉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갔다. 그는 이집트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본분을 다하여 살아남았

고, 끝내 번영도 이루었다. 성경은 요셉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창 39:2~5)

이후 요셉은 꿈의 해몽가가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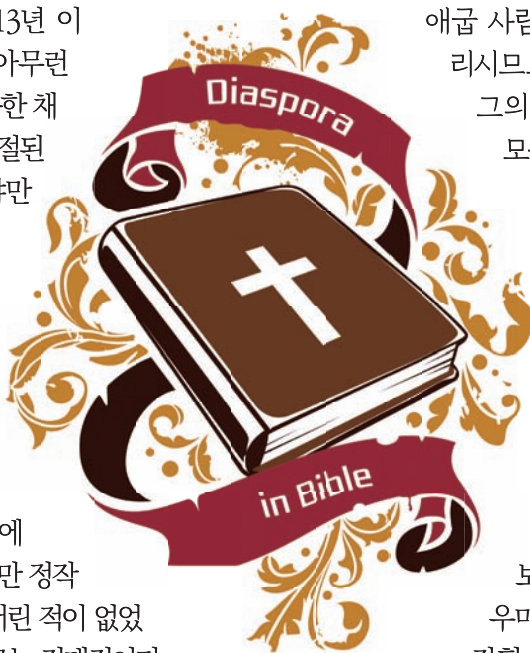
요셉의 노예 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진 경험은 요셉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을 것이다.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하지만 요셉은 서른 살의 나이에 권력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모든 수모를 극복할 수 있었다. 기근이 심해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껴안았고 마침내 요셉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찰

우리는 노예 디아스포라였던 요셉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의 경험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다. 그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은 도리어 요셉이 일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믿음은 흠잡을 데 없었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요셉은 승리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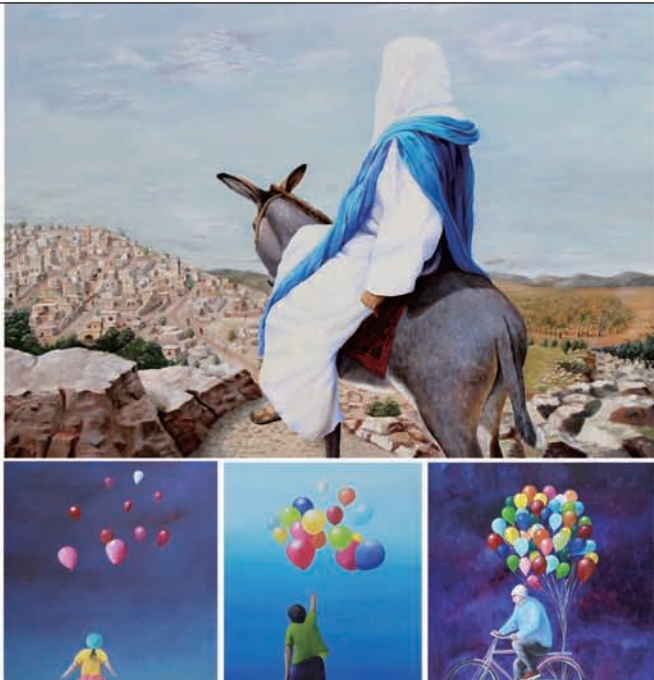
우리는 노예 디아스포라였던 요셉의 경험에서 충실함을 볼 수 있다. 요셉은 부모의 신앙과 영적 유산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충실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했고,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과 인격을 끝까지 유지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충실은 완벽했다.

그는 노예였던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요셉의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놀랍다. 많은 경우에 노예들은 희망을 잃지만, 요셉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힘을 얻었다. 악한 제도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 디아스포라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위 디 국 제 선 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David Hanif
Solo Exhibition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테러로 몸살을 앓는 곳, 그러나 그곳에는 따뜻한 웃음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사계절과 경이 있으나 가려진 나라, 평화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제 마음속에 간직한 조국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소망하며 그림을 통해 그 마음을 담아 봅니다.

Pray for Peace of Afghanistan! 초대개인전

일시 : 2022. 9. 1(목) ~ 9. 30(금)

장소 : 봄갤러리(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데이비드 하니프 DAVID HANIF



현 A-art 대표
현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
현 법무부 위촉 사회통합멘토로 활동
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다수
목우공모미술대전, 기독교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등 다수 공모전 입선
동신교회 출석

이주민 선교를 맛보다... 국내 몽골인 이주민 사역



인터뷰 교회관계 사역

글

송기태 선교사

몽골에서 한 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선교 동원 사역을 위해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일단은 지역 교회 청년, 대학부 선교 동원을 위해 '대청마을'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장충교회에서 몽골인들이 모이고 있으니 몽골어로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여겨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역을 그리 오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학공부를 위해 곧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시작한 국내 몽골인 사역에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국내에서 몽골인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먼저는 이주 몽골인들이 몽골 본토에서 경험한 몽골인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몽골은 '융감한'이란 뜻이다. 그러나 한국에 이주한 몽골인들은 본토의 몽골인들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몽골에서는 선교사들이 몽골어로 말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어를 사용해 본 몽골인들은 내가 자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왔고, 자신들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에 매우 놀랐고 기뻐했다.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본토에서보다 훨씬 수월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움이 필요했다. 우선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받아야 했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도 도움을 받아야 했다. 외국인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집을 계약하는 일에도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한, 몽골인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이주민 사역이 총체적 사역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이주민의 삶의 전반을 함께 해야 함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총체적인 복음에 합당한 사역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몽골인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문득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궁금해졌다. "당신들은 왜 교회에 나오세요?" 나는 그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공장에 가면 우리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셔요." 이 말은 나에게 가히 충격적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그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교회에는 몽골인 예배와 함께 필리핀 예배도 있었다. 어느 날 봉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한 달 중 세 번의 주는 각각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주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찬양했다. 필리핀 예배 담당 사역자



▲ 재한 몽골 유학생 선교대회(MOSTA, MOngolian STudents All nations) 단체사진

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내가 몽골어로 통역을 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란 한국인이나 몽골인 또는 필리핀인 등 어느 특정한 민족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 구분 없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다문화·다민족 공동체임을 말이다.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성경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이다. 그럴 때 바벨탑 사건 속 흩어짐의 의미,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의 삶, 바벨론 포로 생활의 선교적 의미, 신약에서 고넬료와 로마 백부장, 두로와 시돈 사역, 그리고 초기의 선교 역사가 이주민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관점은 나에게 세상과 선교를 혁신적으로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주민 사역을 통하여 '연합'의 중요성과 실체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DMN (Diaspora Mongolian Network)이라는 단

체를 구성했다. 추석과 설날에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여 몽골인 성도들을 훈련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효과도 경험했다. 몽골어 찬양집과 성경 공부 교재도 함께 개발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이주민들의 가족들을 만나 교제하고 전도도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몽골로 돌아간 성도들을 돕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몽골인 이주민 사역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이자 은혜였다. 마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유대교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선교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람들을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지혜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통해 많은 양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한다.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MIGRATION, DIASPORA AND ICs

*국내 영어권 이주민 독자를 위해 영문기사를 게재합니다.



Chair, Lausanne Diaspora

그

Dr. T.V. Thomas

INTRODUCTION

It seems that the whole world's population is on the move! Since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we have witnessed an unprecedented surge in migration worldwide.

We have witnessed worldwide population shifts on a mega scale. People are crossing national borders for many reasons i.e. transnational migration is now a reality. I am going to share with you three important dimensions about transnational migration.

1. Transnational migration is truly a global phenomenon. No one can deny the reality nor can everyone escape the reality that transnational migration is occurring at an accelerated pace. And it is occurring on an unprecedented scale. Therefore, transnational migration is a demographic reality that no one can ignore, because it is now a global reality. The truth is that no community can avoid and no country can be immune to it.

2. Transnational migration is multidirectional

For a long time, the migration of people was from people from the South and East moving to the North and West. But in the last 30 years transnational migration is occurring at unpredictable speed and in all directions. We are witnessing massive polycentric migration. Now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And people are moving in all directions. You have seen it yourself. Almost every single day, international airports are showcas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3. Transnational migration is transformational

This great flow of people around the world is drastically changing many important aspects of societies. Transnational migration has never been as pervasive as it is now. It is seen as an uncontrollable change agent of society. It is changing the social, cultural, religious and even political landscapes of cities, communities, countries and continents. Transnational migration helps in releasing creative energies and adaptations, creating new realities and it causes people to intermingle with other people. Transnational migration is causing the development of a diasporic consciousness which produces confusion, pain, conflicts and even serial migration.

FOUR OBSERVATIONS OF DIASPORA PEOPLES

1. Diaspora peoples exhibit a heightened religious consciousness during their migration and in their new diasporic settings. Sufficient research is available to show that migrants cherish their religious connections and experiences in times of transition. Religion forms a powerful anchor for them in the midst of massive changes of their new environment – weather, culture, isolation from family, etc.

2. Diaspora people are more receptive to Christianity in their host countries. Why does this happen? New environments make people curious. Opens their minds, makes them question their assumptions, they begin to compare their values with the values of others. New environments give a new freedom. Freedom from family structures, from community, from traditions and rituals. New environments make them open to new ideas. Eg. Book of ACTS – Most who came to Christ lived far away from home.

3. A large percentage of the global migrant populations are Christian in their background. Nearly 50 percent have a Christian heritage. Some of the migrants are nominal Christians and they need to receive JESUS as Lord and Savior. Some are

Roman Catholic or Orthodox and they need to be presented with the adventure of being a true disciple of Jesus. Many are believers in Christ and we need to receive them as fellow members of the family of God and help them walk their journey of faith as fellow disciples of Jesus in the host nations.

4. Diaspora Churches (Immigrant/Migrant) are being planted in diasporic settings. By Diaspora Churches/Immigrant churches/Migrant churches, I mean they are ethnic specific, language specific... or culture specific... or a combination of them in the congregation. The First Generation needs Diaspora churches for socialization, enjoy speaking their language freely, enjoy their jokes or exchange political news from back home. Diaspora churches also allow the migrants to worship God in their own heart languages. I am sure you would agree that it is more meaningful for any one of us to worship in our own heart language.

HOW CAN ICs RELATE MISSIONALLY TO MIGRATION AND DIASPORA PEOPLES

My research shows that most of the Diaspora Churches are from the Majority World. Most Diaspora Churches are vernacular language specific or ethnic specific con-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샬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성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샬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gregations, and they may not be fluent in English. And most of the pastors are lay pastors and they are bivocational. You will also find that most of the pastors have had no formal pastoral training. Most of the Diaspora churches are independent with little affiliation to other churches or fellowships. International Churches are pregnant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ir respective congregations.

Here are some topics you can offer:

- Communicate to the Diaspora leaders that you are willing to equip them and also learn from them
- Communicate to the leaders – that you want them to develop

to be effective leaders of healthy churches

- Share with them that you are willing to help them
 - How to prepare Bible-based sermons
 - Share your library with them
 - Share ways to disciple others, how to lead a team and not be a lone ranger, how to develop an effective Boar, and many other topics
- Fourth Way – Be missional to the Diaspora peoples within the city and country In Diaspora Missiology we focus on four primary dimensions:

1. To the Diaspora – Evangelism and discipleship of Diaspora peoples in your current Jerusalem.

2. Through the Diaspora – Mobilization to reach their kinsmen locally and globally.

3. Beyond the Diaspora – Mobilization to reach cross-culturally beyond their Diaspora people.

4. With the Diaspora – Partnership in mission globally. To... Through... Beyond... With. I am convinced that every International Church could at least focus on the first two dimensions – To the Diaspora and Through the Diaspora. In my research I have discovered that most Diaspora Churches are fellowship rich and missionally poor. Sad to say that this is a global phenomenon. There may be individuals in your congregations who could be tapped to focus in reach-

ing one or two Diaspora people groups.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easily do:

- Start a Diaspora focused prayer group.
- Find language specific Bibles, literature, videos, etc., that can be distributed.
- Offer English as Second language classes to Diaspora Churches.
- Mentor a Diaspora leader.
- Many more things could be attempted In your desire to reach the Diaspora peoples you likely can be catalytic and stir the Diaspora Christians and churches to reach their own – locally and globally.

어느 미등록 이주민의 기도

*익명으로 기고되었습니다.

저는 서아프리카 가나와 베냉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토고에서 왔으며, 2019년에 한국에 오자마자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자격을 신청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군 군목이 저의 지인을 초청할 때 저도 함께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후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울러 6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신분증(G-1)을 받는 것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미등록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3D업종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저를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

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을 늘 되뇌곤 합니다. 성경구절을 읽고 나면 금세 힘이 나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고 있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잘되어야 이주민인 저도 안정적이고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의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제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적절한 때에 저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고향과 아프리카 대륙에 관해서 저의 미래 목표는 제 고향 토고에 성경 교육센터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 토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도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신앙으로 무장한 뒤 토고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어르신들과 어린 고아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건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선진국의 성장 비결,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가 빠르게 성장한 비결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기술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은 일할 기회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주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제도와 같은 한국형 제도가 마련되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 땅의 이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리도록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일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울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성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로잔GDN 주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컨설팅' (현지기준 8월 23~2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Dr. Godfrey Harrold(Capetown Baptist Seminary), Dr. TV Thomas(GDN 대표), 황덕영 목사(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설립이사장), 예배 상황



▲미션나가 대회를 주도하는 현한나 교수 (2면 참조)

2022 대전광역시 보조금사업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한국생활 체험수기 발표대회

국제로타리 다문화가족사랑회에서는 한글날 기념 외국인주민 한국생활 체험수기 발표대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있게 도전하세요!

일	시	2022년 10월 9일 전후
장	소	국제로타리다문화가족사랑회
원고제출일시		2022년 9월 24일까지
내	용	자유주제 (A4 용지 1~3매) - 예심 : 원고심사 12명 선발 [한국사회 적응 및 가족응답, 지역사회 적응 및 파급효과, 문장 표현력] - 본선 : 영상 발표대회 [태도, 발음, 말하기 구성, 말하기 표현]
시	상	대상1명(30만), 금상1명(20만), 은상1명(15만), 동상1명(10만) 장려상8명(5만)
비	고	모든 작품 제출자들에게 수기집과 답례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교육담당 진변(chenbian@naver.com) - 연락처 : Tel. (042) 825-7233 / Fax. (042) 825-3233

국제로타리다문화가족사랑회

▲외국인주민 한국생활 체험수기 발표대회 (국제로타리 다문화가족사랑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타겟 2030

KWMA Target 2030

Mission Universe ver.

교회와 선교단체의 건강한 동역	한국교회 선교동력화, 교회 선교교육, 평신도 선교자성 개발 단기선교, 선교사 영배제, 선교사 출구전략, 선교사역의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 및 계속교육, 선교역량 개발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평신도 선교봉사 시스템 구축 및 자원 개발
이주민 선교 & 글로벌 네트워크	이주민 선교 역량 강화, 선교사역 양성, 복음 선교, 국제선교협력네트워크, 대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다음세대 선교	미디어 선교역량 강화, 캠퍼스 선교, 군선교, 안중지능 시대의 선교, 메타버스, 선교 R&D, 선교행정 전문화 및 선교사역의 IT 기술 연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위대국제선교회 주관 '아시아 청년 선교동원 운동' (8월 8-11일, 인도 나갈랜드, 2면 참조)

